

다시 이어진 마음길

신정호



일본과의 인연은 고등학생 시절에 일본어를 배우면서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들의 문화를 좀 더 가까이할 수 있었다. 마침내 2000년 7월 일본 방위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국제 방위학 세미나에 초청되는 행운을 얻었다. 2주 동안의 빡빡한 일정 가운데 한국을 사랑하는 한 중년 부부와의 첫 인연을 마주하게 되었다.

코지마 부부(Shuichi & Noriko Kojima)는 내가 요코스카에 체류하는 동안 나를 도와준 자원봉사자였다. 하루는 그분의 집에 초대되어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다. 고즈넉한 정원이 있고, 다다미로 되어 있는 일본의 전통 가옥이었다. 한 가족과 같은 따뜻한 환대와 다소 활동적인 이웃집 아주머니의 호탕한 웃음, 신선한 생선 덕분에 사케도 제법 많이 마셨다. 그날따라 화장실이 얼마나 좁게 느껴지던지 이쪽저쪽으로 몸을 부딪쳐 가며 그분들의 검소한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그 해 10월 나는 실습 교관으로서 군함을 타고 해군 사관생도들과 함께 순항훈련을 떠났다. 일본을 비롯하여 환태평양 국가들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마침 도쿄 항에 기항했을 때, 그분들을 함상 연회에 초청하여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배도 구경시켜 주었다. 이후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그분들과의 소식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나에게는 서른이 갓 넘은 아들이 있다. 그는 다섯 해째 요코하마에서 제법 알려진 극단의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이다. 일본 친구들을 좋아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우리와 같이 제주에 살겠다는 녀석이다.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공연도 볼 겸 아들을 만나러 일본을 다녀오곤 했다. 요코하마에 갔을 때는 그리 멀지 않은 요코스카에 그분들이 살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작년 가을 제주에서의 새로운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갈 즈음에 코지마 부부가 생각났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들의 옛날 전자우편 주소를 어렵사리 찾아내어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물었다. 다행히 연락이 닿았고 무탈



하다는 소식이 왔다. 우리는 바뀐 전화번호를 비롯해서 집 주소, 가족사진 등을 주고받았다. 20년이 지났지만 두 분의 모습은 옛날 그대로였고, 아직도 서툰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따뜻한 부모가 되어 주고 있었다.

그분들은 내가 일본을 다녀온 이후에도 변함없이 한국 유학생들을 돕고 있었다. 이런 인연으로 2010년에는 '일본 부모'로서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초청되었다고 한다. 당시에 나도 해군의 고위급 장교가 되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터라 극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낮선 땅에서 짧은 만남으로 시작된 한 부부와의 인연은 이곳에 내려옴으로써 다시 이어졌다. 그러니 제주는 그들과 연결한 징검다리인 셈이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서로 왕래하면서 이런저런 소식을 나눌 생각이다. 제주도와 이웃 섬나라 사이에 마음 길이 다시 이어졌으니, 그분들의 변치 않는 한국 사랑처럼 우리의 인연도 더욱 익어 가리라 믿는다.